

2019년 8월 3일(토)자 아사히 신문 25면

韓国・中国・ロシアから学生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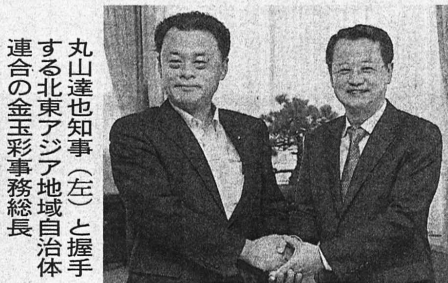
「交流 こういう時こそ」



開会セレモニーで全員で並んで写真を撮る学生ら＝松江市朝日町の松江テルサ

日本と韓国、中国、ロシアの大学生らが文化交流するイベント「北東アジア交流の翼inしまね」が2日、松江市で始まった。計24人の学生らが7日まで県内に滞在し、交流を深める。日韓関係の悪化で県内でも交流事業の中止が相次ぐ中、関係者は「こういう時期こそ交流が必要だ」と話す。

滞在企画 今年も敢行



丸山達也知事(左)と握手する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の金玉彩事務総長

県などが主催し、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が後援する。同連合は北東アジアの共同繁栄を基本理念として1996年に創設。現在は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北朝鮮の6カ国計78自治体が参加している。島根は青少年の文化交流を推進する役割を担っており、2002年から毎夏、県内で交流事業を企画してきた。

イベントには韓国7人、中国8人、ロシア4人、日本5人の計24人の大学生らが参加。今回は一般の家庭にホームステイをするほか、しめ縄づくりを体験したり、森林散策や野外での炊飯を楽しんだりする。

県立大2年の湊妃華さん(20)は「外交関係が難しい今だからこそ、今回のような民間の交流を大事にした」と話した。

かつて韓国の在福岡総領事も務めた、自治体連合の金玉彩事務総長はイベントに先立って丸山達也知事を訪問。「外交的な緊張とは関係なく、まさにこういう時こそ交流していくべきだ」と話している。と話す。丸山知事は「島根県としてもその思いに応えられるよう協力したい」と応じた。

金事務総長は報道陣に日韓の交流事業の中止が相次ぐ現状について問われると、「この危機を乗り越えて以前のような活発な交流を続けたい。21世紀の主役である子どもたちの交流が失われてはいけない」と話した。

(市野塊)

한국・중국・러시아에서 학생들  
 ‘교류 이런 시기야말로’  
 체재기획 올해도 감행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 대학생들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가 2일, 마쓰에시에서 열렸다. 총 24명의 학생들이 7일까지 시마네현내에 체재하면서 돈독히 교류를 쌓을 예정이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현내에서도 교류사업 중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이러 시기

야말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현 등이 주최하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후원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1996년 창설. 현재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6개국 총 78개 회원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시마네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여름 현내에서 교류 사업을 기획해왔다.

이벤트에는 한국 7명, 중국 8명, 러시아 4명, 일본 5명 총 24명의 대학생이 참가.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비롯하여 새끼줄 꼬기, 산림산책과 야영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이다.

현립대학교 2학년 부치 히메카(泐妃華, 20)학생은 '외교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번과 같은 민간 교류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역임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이벤트 참가에 앞서 마루야마 타쓰야 지사를 방문. '외교적인 긴장과는 별도로 이러한 때일수록 교류를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루야마 지사는 '시마네현 또한 그러한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옥채 사무총장은 한일 교류 사업의 중지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한 보도진의 질문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이전과 같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싶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교류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 「日韓緊張関係なく交流を」

## NEAR・金事務総長 知事を訪問



丸山知事(左)と握手を交わす金事務総長(県庁で)

日本や韓国、ロシアなど6か国の78自治体でつくる「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NEAR)」(事務局・韓国・慶尚北道)の金玉

彩事務総長が2日、後援する国際交流事業の開催に合わせ、丸山知事を表敬訪問

した。日韓関係が厳しさを増す中、「緊張関係とは関係なく、交流を深めていくべきだ」と語った。

NEARは、北東アジア地域の共同繁栄を基本理念として1996年に創設され、島根県も参加。金事務

総長は、県主催、NEAR後援の事業「2019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に合わせて来県した。日本、韓国、中国、ロシアの青年計24人が2〜7日、県内の文化や自然などに触れながら交流を深める。県庁で出迎えた丸山知事は「日韓の事業が困難にな

る中、来県はありがたい。

島根と韓国の絆が深められるような交流に期待している」と歓迎。金事務総長は「こういう時こそ、青年た

ちの交流が素晴らしいものになるよう、精いっぱい応援していきたい」と応えた。

金事務総長は韓国の元外交官で駐日韓国大使館の公使などとして計10年以上、日本に滞在した。表敬後の取材に対して、「日韓は大人の国。自分の国のことだけでなく、将来のことを考え、良くするために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と話した。

한일 긴장과는 상관없이 교류를 NEAR·김옥채 사무총장 지사 예방

일본과 한국, 러시아 등 6개국 7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사무국 한국 경상북도)의 김옥채 사무총장이 2일 후원하는 국제교류 사업의 개최에 맞춰 마루야마 지사를 예방하였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긴장 관계와는 상관없이 교류를 증진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NEAR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번영을 기본 이념으로 1996년에 창설되었으며, 시마네현도 참가. 김옥채 사무총장은 현이 주최하고, NEAR가 후원하는 사업인 '2019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에 맞춰 본 현을 방문하였다.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청년 24명이 2~7일 현내 문화와 자연 등에 접하면서 교류를 도모한다.

현청에서 김옥채 사무총장을 맞이한 마루야마 지사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시마네현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시마네와 한국의 유대가 깊어지는 교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김옥채 사무총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청년들이 교류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로써 최대한 응원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전 외교관출신으로 주일본한국대사관의 공사 등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였다. 지사 예방 후 취재에서 ‘한국과 일본은 성숙한 국가로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丸山達也知事を表敬訪問した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の金玉彩事務総長  
＝松江市殿町で

# 「日韓交流」深めるべき

## 金事務総長が知事訪問

国際団体

中国、韓国、ロシア  
と島根の青年がともに  
19北東アジア交流の  
学んで交流する「20

翼inしまね」が27日に県内で行われるのに合わせ、後援する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事務局、韓国・慶尚北道）の金玉彩事務総長が2日、丸山達也知事を表敬訪問した。

金事務総長は「我が連合の創設趣旨が中央政府の外交、政治的な緊張とは関係なく地方政府の交流を深めるというもの。こういう時こそ交流を深めていくべきだ」と力を込めた。

日韓交流の中止が相次ぐ事態に、金事務総長は報道陣に「大変残念に思っている」と話した。

【榊原愛実】

한일교류 증진시켜야  
김옥채 사무총장, 지사 예방  
국제단체

중국, 한국, 러시아와 시마네의 청년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2019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가 2~7일 현내에서 개최되는 것에 맞춰 후원 단체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한국경상북도)의 김옥채 사무총장이 2일 마루야마 다쓰야 지사를 예방하였다.

현이 지원한 서울-이즈모 전세기편이 중단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내방에 대해 마루야마 지사는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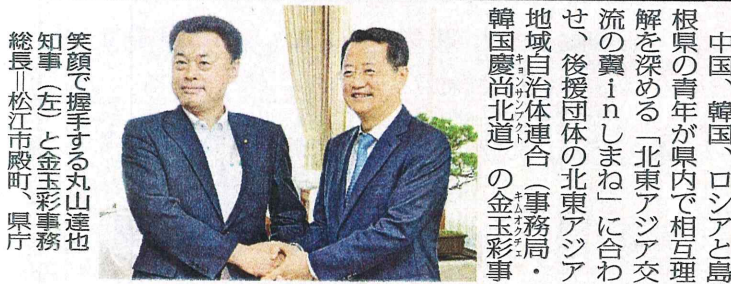
김옥채 사무총장은 '우리 연합의 창설취지가 중앙정부의 외교, 정치적 긴장과는 상관없이 지방정부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 이러한 시기일수록 교류를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교류가 계속 중지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김옥채 사무총장은 보도진에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韓交流の重要性確認

島根

北東ア自治体連合 事務総長が知事訪問



笑顔で握手する丸山達也知事(左)と金玉彩事務総長。松江市殿町、県庁

中国、韓国、ロシアと島根県の青年が県内で相互理解を深める「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に合わせ、後援団体の北東アジア地域自治体連合(事務局・韓国慶尚北道)の金玉彩事務総長(59)が2日、松江市殿町の島根県庁に丸山達也知事を訪ねた。日韓関係が悪化する中で民間交流の重要性を確認し、北東アジアの発展を願った。同連合は1996年に創設。現在は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北朝鮮の計78自治体が参画する。島根県は創設時から加わり、青少年の交流推進分野を担っている。

丸山知事は日韓関係の現状に触れ、「民間レベルの事業が困難な状況の中で、継続してもらい大変ありがたい」と感謝。金玉彩総長は、外交、政治的な緊張とは関係なく交流し、北東アジアの発展に努めることが同連合の創設趣旨だとし、「こういう時こそ交流を深めるべきだ。(各国の)青年たちが交流するのは素晴らしいことで、精いっぱい応援したい」と述べた。終了後、金玉彩総長は取材に対し、今回の交流事業を通して「青年たちが各国の文化の多様性を理解し、平和でゆとりのある関係を築いてほしい」と望んだ。(片山大輔)

## 한일교류 중요성을 확인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이 지사 방문

중국, 한국, 러시아와 시마네현 청년이 현내에서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에 일정에 맞춰 후원단체인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한국 경상북도) 김옥채 사무총장(59)이 2일, 마쓰에시 도노마치 소재 시마네 현청에서 마루야마 타쓰야 지사를 예방하였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동 연합은 1996년에 창설. 현재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총 78개 회원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창설 때부터 가담하여 청소년 교류 추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마루야마 지사는 최근의 한일 관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간 레벨의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 매우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외교, 정치적인 긴장과는 별도로 교류하며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 연합의 창설 취지이므로 '이러한 시기일수록 교류를 도모해야 한다. (각 국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로써 최대한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사 방문 후, 김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이번 교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각

국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